

# ★ 사관학교 기출 - 영상섭 (전화) ★

[앞부분 줄거리] 이 주사는 추첨에 뽑혀 아내의 옷과 패물을 전당국에 잡히고 300원에 전화를 놓았다. 이를 동안 첫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던 아내는 기생 채홍이 남편을 찾는 전화에 기분이 상했다. 이 주사는 퇴근길에 선물을 사 와서 아내를 달랜다.

“지녁을 먹으러 오라는데 안 간달 수가 있나. 가마구 했지.”

따라 놓았던 술잔을 들어 마시고 부득부득 나갈 채비를 차린다. 아내가 모처럼 마음먹고 받아다가 준 술을 좋은 기분으로 맛있게 먹던 판이나 요릿집 가서 정종을 먹지 하는 생각을 하니 술맛도 금시로 씹쓸한 것이었다.

“또 요릿집이겠군요? 또 술로 밤을 새실 테니 진지를 좀 뜨시구 나가시구려. 참 원수의 전화를 달더니 밥상 받고 있는 이까지 불러내 가구, 별일이 다 많군!”

아내는 눈살이 찌푸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. 아이가 없는 이 아씨는 더구나 밤에는 남편을 내놓기가 무엇보다도 싫었지만 오늘 애를 써 차려놓은 저녁상을 받고 마악 재미있게 먹으려는 판에 그놈의 전화가 간신히 마음을 잡고 들어앉았는 사람을 들추서 끌어내 가니 전화 탓이 저절로 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. 그러나 주인은 들은 채 만 채하고 두루마기를 꺼내라 해서 입고 나가 버렸다.

그날 밤으로 주인이 나간 뒤에 전화가 또 두 번이나 왔다. 처음 한 번은 주인이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㉠ 아침에 걸던 여자와 같은 목소리로 안 계시다 하여도 부득부득 대어달라고 하는 것이 성이 가시기에 한바탕 몰아세우고 딱 끊어버린 것은 슬며시 화풀이도 되고 통쾌도 하였거니와 그다음에 밤이 이슬하여 온 것은 남편이 요릿집에서 건 것이었다.

부부가 전화로 이야기를 해본 일은 처음이라 목소리가 반갑기도 하여 혼자 전화통에 대고 부끄러운 듯이 웃음도 저절로 나왔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판이니 이런 때는 전화도 쓸모가 있다고 고맙게 생각하였지마는 술 취한 목소리로,

“난 오늘 못 들어가겠는데 그래두 상관없겠소? …… 그한테 가는 길야! 문 꼭 닫고 잘 주무시죠……”

어찌고 하는 주장 비슷 농담 비슷한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처분대로 하라 하고 끊어 버렸던 것이다.

[중략 부분 줄거리] 전화를 놓고 아내와 갈등을 겪던 이 주사는 김 주사에게 전화를 핏기로 한다.

㉡ “아침에 전화를 때 갔죠!” 하고 알던 이나 빠진 듯이, 그러나 일대 사변이나 일어난 듯이 남편을 보는 말에 보고를 하면서 그래두 매우 서운한 기색으로 선웃음을 친다. 마루 위를 치어다 보니 땀은 전화통을 받치었던 나무판만 허영계 담벼락에 붙어 있다. 이 주사도 좀 섭섭하였다.

“그런데 우편국 사람을 테리구 왔던 사람이 이런 편지를 두구 갔어요.”

하고 아씨는 남편을 따라 들어와서 뜯어보고 난 편지 한 장을 내어 준다.

“뭐야?……”

“글쎄 보세요?” 하고 아내는 말뚱히 남편의 기색만 살피는 양

이 수상하다. 채홍이란 년이 부부 씹이나 붙여놓으려고 장난으로 편지를 한 것이나 아닌가 하는 겁도 나고 불쾌한 생각이 나면서 꺼내 보니 김 주사의 부친이 한 편지다.

자기 아들에게 여러 번 채근을 하였으나, 전화 값 칠백 원의 영수증을 왜 아니 써 보내느냐? 또 아들의 말을 들으면 그 전화는 일 년이 지난 뒤에 명의를 변경하는 규정이라니 팔고 사는 형식은 취할 수 없을 것인즉 전화를 담보로 하고 칠백 원을 취해가는 차용증서를 곧 써 보내라는 것이다.

편지를 보던 이 주사는 눈이 뚱그리며 이맛살을 잔뜩 찌푸렸다. “전화 값이 칠백 원이래요? 그래 이백 원은 어디 갔어요?”

편지를 먼저 본 아내는 남편을 한바탕해 널 작정으로 눈독을 잔뜩 들이고 버르고 앉았다.

“글쎄 말야! 이놈이 떼어먹은 게로군!”

“그게 무슨 어립없는 소리예요. 오백 원이고 칠백 원이고 돈을 받았으면 영수증을 써 주셨겠소?”

“우리 세에 영수증 여부가 있느냐기에 돈만 반구 영수증은 안 써 주었어.”

“그런 호리명탕한 일이 있을 리가 있나! 돈만 반구 전화 안 내주면 어찌개! 조화가 붙은 거예요 그 돈 이백 원 어서 마저 내노슈.”

“뭘 내노라는 거야? 이런 주책없는!”

주인은 ㉢ 어이가 없어 웃어 버린다.

“무에 주책이 없어요? 채홍이 너의 입으루 들어갔지 뭐예요.”

“잘 알었소. 채홍이 너의 입으루 들어갔던지, 코루 들어갔던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어찌를 뜻했어? 이백 원 떼어 쓰자면 칠백 원 영수증 써 놓고는 못 쓰겠기에! 영수증에는 입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니 입자를 속이겠을까?”

듣고 보니 땀은 그렇다. 아내는 얇은 생각에 남편이 정녕 자기를 속였으리라고만 단순히 생각한 것이 열썩기도 하다.

“그래두 김 주사하구 짜구 떼어 쓰셨지 뭐야?”

“짜구 쓰기루, 김 주사 어른에게 영수증야 못 써 들여놓을까.”

그도 그렇다. ㉣ 아내의 낯빛이 좀 어색해졌으나, 다시 생기가 돌면서,

“그럼 됐구려. 그 이백 원은 내가 받아들 테니, 영수증만 써 주슈. 이 편지하구 지금이라두 가지구 가서 부자를 한자리에 앉히구 따져서 당장 받아들 테니!”

그도 그럴 듯하고 자기가 나서서 맞대해 놓고는 아무래도 거북하니까 남편이 도리어 좋을 것 같다.

“아무려나 해보구려.” 하고 영수증을 써 주었다.

“그 이백 원, 받아 오면 그건 내 거예요!”

아내는 웃을 부당부당 같아입는다.

㉤ “아무려나 처분대로 하우. 그 대신 인제는 바가지나 굶지 않는다는 다짐은 받아야 될 걸!” 하고 남편은 웃었다.

아씨는 전당국에서 나온 두루마기에 외투에 여우 목도리를 걸치고 남편이 저번 날 사 온 회색 장갑을 끼고 고양이같이 신이 나서 나갔다.

어떻게 되누? 하고 이 주사는 안방에 누웠으리니까 두어 시간이나 거례를 하더니 또 풍우같이 들어온다.

“가다간 이런 일두 있어야 살 재미가 있는 거야.”

아씨의 신기가 이렇게 좋기란 결혼 이후에 처음일 것이다.

“그래 아무 소리 없이 내눅디까?”

“마침, 아들(김 주사)두 나와 있겠소. 영감은 일이 이렇게 될

좋은 모르고, 전화를 안 내놓거나 하면 돈만 뜯까 봐 겁은 나  
 구, 아들은 못 민졌구 해서 뒷구멍으로 알아보느라구 이리 직  
 접 편지를 했던가 봅디다. 그러나 아들이 오백 원에 흥정이 된  
 거라고 고집을 부립디다마는, 그럼 무르자고 야단을 쳤드니 결  
 국 영감이 수그러지드군요. 칠백 원이라두 저희는 이가 되기에  
 선뜻 또다시 이백 원을 내놓겠지.”

“흥, 자식이 떼먹은 것이니까 창피한 생각도 들어서 내놓은 것  
 이겠지만, 그 영감 결국 채홍이에게 아들의  
 해웃값\* 무리꾸럭해\* 준 셈이군.” 하고 슬며시 아내더러 들어  
 보라고 이런 소리를 하였다.

“그럼 채홍이 집 김장은 김 주사가 해줬구려? 흥, 그래?”  
 ㉠ 인제야 안심이 되었다는 듯이 아내는 셀쭉 웃다가,  
 “여보, 우리 어떻게 또 전화 하나 댈 수 없소?” 하고 웃도 채  
 못 벗고, 턱밑에 다가앉아서 조르듯이 의논을 한다.  
 남편은 하 ㉡ 어이가 없어서 웃기만 하며 아내의 얼굴을 뵈히  
 들여다본다.

- 염상섭, 「전화」 -

- \* 거래: 까닭 없이 지체하며 매우 느리게 움직임.
- \* 해웃값: 기생 따위의 어울려 놓고 그 대가로 주는 돈.
- \* 무리꾸럭해: 남의 빛이나 손해를 대신 치러.

16.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- ① 대화를 중심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.
- ② 동일한 시간의 두 공간을 연결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.
- ③ 액자 구조를 활용하여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암시하고 있다.
- ④ 다양한 시점을 혼용하여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
- ⑤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여 사건 전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.

17. ㉠~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- 18. ㉠: ‘남편’의 외출과 전화를 건 이의 태도로 인해 상했던 ‘아내’의 기분이 나아졌다.
- 19. ㉡: ‘아내’는 ‘남편’에게 전화를 떼어 간 사실을 전하며 후련함과 아쉬움을 느꼈다.
- 20. ㉠: ‘아내’는 ‘남편’의 거짓말에 속을 뻔하다가 결국 속지 않았다는 데에서 쾌감을 느꼈다.
- 21. ㉡: ‘남편’은 전화 값을 둘러싼 ‘아내’의 오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여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.
- 22. ㉡: ‘아내’는 ‘남편’이 ‘채홍’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놓였다

18. ㉠, ㉡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4점]

- ① ㉠은 ‘남편’과 ‘아내’의 갈등을 심화하는 반면, ㉡는 ‘남편’과 ‘아내’의 갈등을 완화한다.
- ② ㉠은 ‘남편’과 ‘아내’의 적극적인 대화를 이끄는 반면, ㉡는 ‘남편’과 ‘아내’의 대화를 단절시킨다.
- ③ ㉠은 ‘아내’의 말에 억울함을 느낀, ㉡는 ‘아내’의 말에 새로운 기회를 깨달은 ‘남편’의 태도를 나타낸다.
- ④ ㉠, ㉡ 모두 ‘아내’가 자신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말한 것 같아 궁지에 몰린 ‘남편’의 상황을 보여 준다.
- ⑤ ㉠, ㉡ 모두 ‘아내’가 한 말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말이어서 기가 막힌 ‘남편’의 심리를 드러낸다.

19. <보기>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4점]

—<보 기>—

염상섭은 식민지 조선에 도입된 근대 문물이 조선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하여 그려낸 작가이다. 이 작품은 ‘전화’라는 의사소통 수단의 도입이 불러일으킨 변화와 이를 둘러싼 중산층 생활인의 욕망과 허위, 속물근성 등을 묘사함으로써, 근대 문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.

- ① ‘남편’이 전화를 받고 나가는 장면에는 전화의 도입이 일상에 미친 영향이 드러나 있다.
- ② 부부간의 통화 장면에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‘남편’과 첫 대화를 나누는 ‘아내’의 설렘이 드러나 있다.
- ③ ‘남편’이 영수증을 달라는 편지를 읽는 장면에는 근대 문물에 적응하는 정도가 다른 조선인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.
- ④ 전화 값을 둘러싼 ‘이 주사’와 ‘김 주사’ 간의 사건에는 중산층 생활인이 지닌 욕망과 허위가 드러나 있다.
- ⑤ 전화를 또 하나 놓자는 ‘아내’의 말에는 전화 소유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한 중산층의 속물근성이 드러나 있다.